

# 국회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 빨리 결정하라”

##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촉구 결의안’ 통과

### 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 합의안 지켜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호남고속철도건설 2단계 노선 결정 촉구결의안’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의 제안에 의해 여야가 합의하고 같은 당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 명의로 발의됐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4월 1단계 사업구간(충북 오송-광주송정)을 개통하고 2017년까지 2단계 사업구간(광주송정-목포)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노선 결정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등으로 7월 현재 사업은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노선을 조속히 확정하고, 2015년 중 사업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노선 결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한 사항을 존중해 ‘광주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는 이 같은 촉구 이유에 대해 “광주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를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가

합의를 도출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예산 문제 때문으로 ‘광주송정~나주~목포’와 ‘광주송정~나주~합평~무안공항’으로 노선을 이원화하고 기존 일반철도 선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최종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작년 예산 200억원이 불용처리됐으며 올해 예산 300억원도 불용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어 “철도건설사업은 국가 교통정책의 수립 및 교통에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의 소관이다. 기획재정부가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며 노선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예산편성 권한을 통해 사업의 내용을 사실상 결정하려는 것으로 해당 부처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특히 “당초 기본계획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2017년 완

공을 목표로 했으나, 기본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사전절차를 고려할 때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더불어 지가 등의 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와 예산의 반복적인 미집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조속히 합의의 노선을 확정, 2015년 내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4월16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무성·문재인 등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155명이 서명한 ‘호남고속철도 사업구간 요금 인하 및 증편·운영시간 단축 등 운영 개선과 2단계 구간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다. 이 결의안은 일부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국회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 박지경기자 jkpark@

# “부부 주소지 다르고 9번 이전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아니냐”

## 전남도의회, 김승권 전남복지재단 대표 후보자 청문회

14일 김승권(60)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남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부동산투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중복 질의’, ‘개인 신상 털기’, ‘고압적인 자제’ 등도 지적됐다.

전남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강성위)는 이날 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지난 1월 전남도와 도의회가 ‘인사청문 실시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으로, 후보자를 상대로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일일문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일(새정치연합·진도)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80년대 주소지를 9번이나 이전했고 15년 동안 부부가 주소지를 다르게 하고 있다”며 “학군 배정이나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형주(새정치연합·화순) 의원은

“평생 사회복지 연구자로 살아온 후보자가 적지않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주택과 주식, 토지 등이다”며 “농지를 취득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김 후보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농지에 소나무를 심을 당시 면사무소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하려 했으면 서울 강남이어서 하는데 첫번째 주택 매입지가 마포구 공덕동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연구원 재직 당시 10여명의 연구논문이 발표 공로로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자기 소개와 직무수행계획에서 밝힌 내용을 반복 질의하거나 김 후보자의 결혼 연도, 동거 여부 등 개인 신상을 캐물어 눈총을 받았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15일 오전 보고서 작성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전남도에 의결을 통보할 예정이다.

다. /윤현석기자 chadol@

# “36조 묻지마 투자 해외자원개발 실패”

## 감사원 중간 결과 발표 ... 정치적 파장 클 듯

감사원이 14일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실적에 거의 없다는 내용의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또다시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 성과분석’ 중간 감사결과를 통해 정부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난 1984년부터 35조8천억원을 투자해 169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했지만 자원확보 실적은 미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옛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은 감사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외 자원개발 같은 장기적 투자 행위에 대해 감사원이 중간중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는지 의문”이라며 “중앙행정기관을 미련하고 생각 없는 부처로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직접 대응에 나서면 정치적인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오랫동안 유전 개발을 해 온 서구 선진국도 많은 검토 끝에 시추해 기름이 나올 확률은 20%에 불과하다”며 “실패한 사업만 꼬집어 단기적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년~30년에 걸쳐 나타나는 장기적 사업”이라며 “퇴임한 지 2년도 안된 상황에서 자원 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거에서 송충을 찾는 격’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공세에 재차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및 해외자원개발국조특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을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기능은 완전히 망가졌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또 최경환 당시 지경부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자원개발 성과 감사는 시작부터 적지 않은 논란을 낳았다. 감사원은 자원개발 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역대 최대규모인 46명의 인원을 투입해 감사를 벌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자원외교 성과를 놓고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 전라선 누리로 증편

### 8월 KTX 좌석 확대

#### 주승용 의원 밝혀



좌석 부족 지적을 받아온 전라선에 누리로(무궁화급) 1편이 임시 증편되고 8월부터 KTX 좌석이 확대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14일 “그동안 코레일에 전라선 수요 증가에 따른 증편과 좌석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이번에 코레일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부를 수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일단 오는 17일부터 9월6일까지 263석 규모의 누리로 열차를 토요일 일요일 용산에서 오전 9시43분에, 여수에서 오후 5시2분에 매일 왕복 운행하고 앞으로 수요를 보고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KTX 증편 대신 다음달 1일부터 363석 규모의 구형 KTX 산천 4편을 47석이 늘어난 410석 규모의 신형으로 교체해 운행한다.

코레일이 이번 KTX 증편 계획에 전라선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지난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 시 하루 18차레이던 전라선 KTX 운행횟수를 20회로 늘렸고 하루 6534석이던 공급 좌석을 1만856석으로 이미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올 하반기 코레일이 주문한 KTX 차량 5편이 완성되는데, 전라선에 편성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 참석해 보고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원 “伊 해킹 프로그램 연구용 구입”

## 국민 상대 활용은 부인

국가정보원은 14일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해킹 소프트웨어인 ‘리모트컨트롤 시스템(RCS)’을 구입했고 각종 기술 문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프로그램 구입 사실은 시인했으나 우리 국민을 상대로 활용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이메일을 통해 각종 문의를 했으나 구입 물량이 소량이고 목적도 북한의 해킹을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이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한 적은 결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35개국 97개 정보·수사 기관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국가 보안상 철저히 ‘노 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과거와 같이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오픈기념 100구좌 한정판매상품 마감임박!**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NO.1 골프선불카드 에스골프 선불카드

전국 300곳 골프장 (대전, 충남 명문골프장)포함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지원**

에스골프 홍보모델 최홍림

**광주지사OPEN기념 (한정100구좌)**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9001-04-042641 (주)삼성회원권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싱글	350만원	기명 1인	3년	총 40회 (년 15회)	주중 3회 또는 주중 1회, 주말 1회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3년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VAT포함 금액입니다.

**SG에스골프만의 혜택**

1.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2. 비즈니스 활용(무기명 4인-최고 만족도)
3.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광주지사)

062) 415 - 8811

본사 서울 1566-9799

지사 부산 (경남.부산지역) 051)916-9700  
 경남 (경남.부산지역) 051)916-7070  
 대전 (충남.대전지역) 042)320-7800  
 대구 (경북.대구지역) 053)248-6666  
 울산 (경남.부산지역) 052)260-4575

**Famile co**

SAMSUNG MEMBERSHIP  
**삼성회원권**

BOOKING G B MALL M S  
골프부킹사이트  
www.bookingmall.co.kr

SG 에스골프

BOOKING H T MALLS C G  
호텔/콘도예약사이트  
www.bookingmalls.com

한진관광 (타워벨리스점)  
http://tp.kaitour.com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http://www.bookingmall.co.kr